November 2002_Vol 26

Votre Majesté

Sheraton Grande Walkerhill Hotel Membership Club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춤언어' "Body Language combined with Technology

컴퓨터 그래픽 기법 중 하나인 모션캡처는 인간의 관절 혹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센서를 부착하여 컴퓨터로 그 움직임을 캡처 · 입력한 뒤 가상의 인물이나 로봇에게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런 테크놀로지 기법을 기본으로 오히려 로봇의 동작을 인간이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떤 몸짓이 될까. 모범답안이랄 수 있는 공연이 지난 10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있었다.

가장 혁신적인 공연을 만들어 내는 21세기 안무가 파블로 벤투라. 그가 이끄는 벤투라 무용단은 시대를 장악한 첨단 과학 기술과 컴퓨터를 이용해 실험정신이 가득한 공연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2 세계무용축제(SIDance)' 에 참가한 벤투라의 새로운 공연 〈ZONE〉 역시 예상대로 파격적인 무대였다. 무대 공중에 매달린 네 개의 멀티비전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여 주듯 연속적인 화면 체인징으로 21세기 첨단 문명 사회를 연상케 했고, 그 아래에서 무용수들의 몸짓은 더욱 기계적이 되어 갔다. 공연 중반부에 이르면 무대 앞쪽 공간이 열리고 그 사이로 600kg 짜리 산업용 로봇이 등장, 벤투라 무용단의 실험정신은 극에 달한다. 로봇의 동작과 무용수들의 동작이 서로 섞여들고 로봇의 내장 카메라로 찍은 무대 모습을 멀티비전을 통해 보여 주는 등 색다른 시도를 통해 춤과 테크놀로지의 교감을 이끌어 냈다.

머스 커닝햄의 컴퓨터라이징 안무법인 '라이프 폼(Life Form)' 을 활용해 만든 이 동작들은 컴퓨터에 머리, 팔, 다리, 허리 등 관절의 움직임의 한계를 입력하고 그것을 무작위로 섞은 후 다시 새롭게 만든 것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창조된 움직임의 많은 부분이 인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관절이 부러질 수 있는 동작도 있기 때문에, 안무가는 이 가운데 무용수가 소화할 수 있는 움직임만을 걸러내 연결시키고, 다시 이를 공간구조, 음악, 동작, 색깔, 영상 등과 조화시키는 조금은 복잡한 안무 과정을 거친다. A부터 Z까지 오로지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힘' 과 '안무가의 힘', '무용수들의 힘' 에 의한 탄생인 것. 테크놀로지에 의해 창조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춤언어' 는 안무가의 손길을 거쳐야 완전한 '대화가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ZONE〉은 컴퓨터 작업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해 낼 수 없는 움직임과 관습적인 몸의 움직임을 넘어선 기발한 동작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벤투라 무용단 무용수들은 신체 움직임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고, 기존의 동작들에 대한 머릿속의 '칩' 도 바꿔야 하리라. 공연을 보는 내내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등장했던 우주선 디스커버리 호와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의 깡통로봇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

에디터_박세나 · 포트그래퍼_이광주 · 디자인_최승연